

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바자회:** 선교와 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일시: 11월 17일(토) 오전 8시 ~ 오후 3시 (오전 7시부터 준비)

장소: Hall 및 교회 마당 담당: 조현구, 김광영 집사, 남녀 선교회 임원

물품수집: 16일(금)까지 물품을 담을 비닐 봉지(사용했던 것)도 함께 접수합니다.

준비모임: 오늘 2시 45분 유아실에서 남녀 선교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 **협력:** 바자회 최종 정검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6일 (금)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장소: 교회 Hall

◎ **도움:** 2013년 교회 요람 발간에 따른 주소, 전화번호, 상호가 변경된 성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 12월 9일 총회를 앞 두고 각 남녀 선교회 임원 모임을 차례로 갖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 선교회: 11월 18일 주일 예배 후 유아실 / 남선교회: 11월 25일 예배 후 유아실

◎ **감사:** 결혼식 준비에 여러모로 협력하신 성도들, 예배 후 교제를 위한 떡을 준비하신 조재근(방명아) 집사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월례회:** 2남 선교회, 3여 선교회 월례회가 유아실과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11월 새벽 기도회 본문

2일: 옵기 18:1-21 사망에 이르는 악인의 운명

16일: 옵기 27:1-12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30일: 옵기 33:14-33 말씀을 찾는 갈급한 마음

9일: 옵기 22:1-20 추정하는 죄목, 직설적인 정죄

23일: 옵기 30:16-31 광야길을 통과하는 티끌 인생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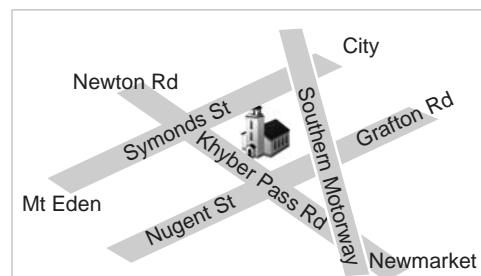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밀알장애인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오는 길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2012년 11월 11일

14권 46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날 사람 그 예배자 (요4:24)

주님께서 보내시는 신호, 빨간 불.....

오늘도 또 늦었습니다. 모처럼 늦지 않았구나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버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늦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학교로 향하려 했습니다. 팬찮을 거야, 학교 끝나고 주유소 가지 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어요. 사실 어제부터 차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배 고프다 구요. 그 빨간 불을 무시하며 마음은 좀 불편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왼쪽으로 빠져 나와야 하는데 직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토웨이..... 이런 세상에 들어서고서야 인식이 됩니다. 이건 아닌데..... 학교 가는 길 아니잖아. 가장 가까운 인터섹션에서 빠져 나와보니 그대로 가면 늦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근처에 주유소가 있지만 주유하다 보면 최소한 10분은 걸릴 텐데..... 그럼 지각이고 그냥 가면 최소한 지각은 안 하겠다..... 빨간 불..... 팬찮을 거야..... 나중에 학교 끝나고 주유소 가지 뭐.....

그런데 갑자기 머리 속에서 번쩍합니다. 이렇게 모토웨이로 진입하게 하시고 주유소를 눈에 띄게 하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기름 넣고 3분 지각했습니다. 예정된 시험도 보았고, 선생님께 조금 미안했지만, 별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비어 있는 은혜의 탱크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시는 신호, 빨간 불..... 주님의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달려가다 아차 싶고. 그 아차 하는 순간도 모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지만 조금 더 주님의 신호에 민감하여 조금 더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이 좋아졌던 어느 날, 원미경

대한예수교
장로회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15:11-13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8장	다함께
※ 성시교독	28. 시편 63편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60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덕철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3:24-41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이 사람을 힘입어	이태한목사
찬송	80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11월 교회일지

- 바자회:
11월 17일(토)
- 정책당회
11월 24일(토)
- 공동체 주관 수
11월 28일(수)

◎ 11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고성일
새신자 안내:
김광자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민광호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병민 집사
다음 주일 2부:	방명아 집사
11월 21일 수요기도:	조은희 집사
11월 21일 애찬기도:	남영수 집사
11월 25일 1부:	박일영 장로
11월 25일 2부:	장연식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지진 여파로 오클랜드는 심각한 주택난과 높은 렌트비로 시름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속히 실현되도록, 국회에 상정된 동성 간 결혼 합법화안이 한인 교회와 모든 키위 교회들이 연합으로 무산되어 하나님이 가증되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나라 되도록.

2. 교회와 공동체

선교와 성전 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직장과 직업을 찾는 성도들이 합당한 일자리를 찾도록, 새로 사업을 구상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지혜를 얻도록.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찾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기보다 말씀에 우선하여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 이전 준비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협심하여 기도하면, 합당한 매물이 나타나도록.

3. 개인기도

갈보리 좋은 글

주후 4세기 교회의 대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이 완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천국의 문지기는 어거스틴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자기는 한 크리스찬이라고 했다.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했다.

“당신은 크리스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와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으로 차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시세로(Marcus Cicero, 106-43 B.C.)의 사상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에 들어 있는 것과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꿈을 깨 어거스틴은 작정을 했다고 한다

“나는 크리스챤이다. 그런고로 나는 크리스챤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에 전념하리라!”

만약 나의 머리속의 사상, 욕구 등을 천사가 볼 수 있다면 나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다